

# 會計評價에 관한 小考\*

趙 星 河

## I. 問 題

具體的인 資産이나 負債項目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는 傳統的 會計學의 가장 主要한 課題이었다. 즉 어떠한 測定對象을 評價하기 위한 여러가지 相異한 方法이 提示되어 各己의 長短點을 論하는 것은 從來의 會計學文獻의 가장 큰 部分을 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各各의 方法이 서로 다른 前提위에 提示되고 主張되어 論理的으로 適切한 結論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會計評價에 관한 理論의 定立은 期待할 수도 없는 것으로 認識하게 되었다.

이러한 理由에서 會計學에 있어서 會計(特히 財務會計)를 正確한 期間損益의 計算을 위한 技術(art)이라고 定義하고 評價는 이러한 損益計算에 있어서 副次的인 것이라는 主張이 強하게 擡頭되었다. 이러한 主張에 따라 期間 損益의 計算을 위한 여러가지 方法이 提示되고 主張되었으며, 評價의 問題는 損益計算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取扱되었다.

그러나 會計學에 있어서 正確한 損益計算方法에 관한 오랜동안의 論議도 結果의으로는 滿足할 만한 結果로 이르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最近 會計學에 있어서는 會計의 本質에 관한 새로운 究明의 努力이 展開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努力中 代表的인 潮流로서 會計를 하나의 特定시스템으로 觀察하려는 것은 會計理論의 發展에 重要한 影響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會計가 本質的으로 財務的 情報(financial information)를 提供하여야 한다는 事實을 否認하지 않는 限, 貨幣的 價値는 會計의 重要한 對象이 되며, 따라서 評價의 問題는 會計學의 重要한 部分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評價의 本質과 會計에 있어서 評價의 問題를 다루는데 考慮되어야 할 事實을 考察하고자 한다.

筆者：高麗大學校 商科大學 專任講師

\* 本稿는 本學會 主催로 1974年 5月 全州에서 開催된 1974年度 第1回 研究發表會에서 發表한 論文內容의 要約임.

## II. 會計評價의 意義

一般的으로 評價(valuation)는 어떤 事物(評價對象)의 “有用性, 重要性 또는 一般的 價値를 稱量하거나 재는 것”(rating or scaling in usefulness, importance or general worth)이라 理解되고 있다. [Webster's 3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現代의 貨幣經濟社會에 있어서 經濟的 價値는 一般的으로 貨幣額으로 나타내 질 수 있기때문에 經濟學的인 意味에 있어서 貨幣는 一般的인 經濟價値의 尺度로 利用되고 있기때문에 經濟的 價値의 評價는 貨幣單位의 數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財務的 表現”(financial representation)을 基本的인 性格으로 하고 있는 會計測定(accounting measurement)은 評價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會計 實務에 있어서 測定은 두가지 相異한, 그러나 서로 關聯된 過程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會計測定은 評價와 配分(allocation)으로 構成되는 것으로, 評價는 會計實體의 input이나 output의 價値를 直接 재는 것이며, 配分은 測定對象의 價値를 直接測定하는 것이 아니라 一定한 方法으로 區分하여 間接的으로 測定하는 方法이다. 配分은 基本的으로 會計의 期間計算(periodic calculation)에 따라 利用되고 있는 間接 測定方法이나, 配分에 의하여 얻어지는 結果는 價値의 秤量이라는 점에 있어서 評價와 다름이 없고, 따라서 配分을 間接的 評價(indirect valuation)라 表現되기도 한다. 그러나 間接測定(indirect measurement) 方法은 原則的으로 直接測定이 利用될 수 없거나 困難한 경우에 利用되는 것인 바, 會計에 있어서의 配分도 便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 III. 市場의 區分과 經濟價値의 諸概念

經濟價値는 一般的으로 市場交換에 있어서의 價値로 理解되고 있다. 즉 어떠한 財貨(또는 서비스)의 經濟的 價値는 그것과 交換되어 取得 또는 포기되는 다른 財貨(또는 서비스)의 分量으로 把握된다. 現代 貨幣經濟社會에 있어서 經濟價値는 交換에 의해 支配하는 貨幣單位의 數로 理解되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 價値를 測定하기 위하여는 市場交換에 있어서의 價値評價를 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評價의 對象이 되는 財貨나 서비스는 언제나 測定當時에 市場에서 交換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評價는 여러가지 假想的인 交換을 前提로 이루어지게 된다. 市場交換은 當事者의 立場(購入市場, 販賣市場), 交換의 時點(過去, 現在, 未來), 交換되는 現態(原初, 現狀, 終極)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그러한 交換에 있어서의 價値도 概念上으로 差異가 난다 [Edward and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pp.74~79] 이러한 여러 가지 價値概念을 表示하면 表-1과 같다.

表-1에 提示된 概念이 모두 經濟的 價値라는 事實은 經濟的 價値를 測定하여야 하는 會計測定에 問題를 惹起해 주는 本質的인 要素가 되고 있다.

〈表-1〉 經濟的價値의 諸概念(A)

時間	形態 市場	原 初 形 態	現 在 形 態	窮 極 形 態
過 去	購入市場 販賣市場	歷史原價 過去機會原價	過去現狀原價 過去機會原價(2)	—
現 在	購入市場 販賣市場	現在原價 —	現狀原價 機會原價	現在價値
未 來	購入市場 販賣市場	豫測代置原價(1) —	豫測代置原價(2) 豫測處分價値	— 期待價値

#### IV. 評價基準의 選擇

會計는 基本的으로 그 測定値를 통하여 會計情報의 利用者의 合理的 判斷을 위하여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따라서 會計가 어떠한 評價基準을 適用하여 測定할 것인가의 問題는 어떠한 評價基準에 의하여 얻어지는 會計測定値가 利用者에게 가장 有用한 情報를 提供할 것인가를 定하는 問題라 할 수 있다.

情報의 有用性(usefulness)은 基本的으로 目的適合性 (relevance)과 信憑性 (reliability)으로 構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有用한 情報란 그 情報를 利用하려고 하는 意思決定 目的에 合當한 內容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會計가 그 機能을 통하여 社會에 보다 有益하게 寄與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會計情報의 利用者의 意思決定 模型과 情況을 明確하게 理解하여야 하며 또한 測定技術의 向上을 통하여 提供하는 情報의 信憑性을 提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한 概念의 經濟價値의 測定이 모든 意思決定 目的에 언제나 最善의 것이라고 期待할 수는 없다. 따라서 測定の 段階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概念의 價値의 測定이 이루어지고, 情報利用者의 利用目的에 適合한 情報를 選擇하여 報告하는 多重目的 會計(multiple specific purpose accounting)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